

윤석열 호 대한민국의 위기: 교회가 문제요 답이다

성경말씀: 창35:1-5

지난주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지, 탄핵 소추안 발의, 결의 등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일을 경험하였다.

연속되는 탄핵 시도로 국가가 또 다시 전복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자유 민주주의/공산주의의 사상 대립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갈등이 지속되다가 8년 전 큰 충돌로 나라가 전복될 뻔했다가 이번에 다시 충돌해서 전복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

내란, 쿠데타 등 언론이나 좌익 세력이 사용하는 말은 비헌법적, 반대한민국적 언어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이런 국가의 위기를 두고 투명 인간처럼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 >, 창34, 35장, 야곱에게 일어난 위기,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가? 지금 동일한 위기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가 제시하고 말씀대로 교회가 실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안이 다시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는다.

야곱

성경의 여러 인물, 가장 인간적인 인물,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둘째, 형은 에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둘이 다툼(창25:22-23)

야곱은 둘째로 나오면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음(25:26)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 야곱은 평야의 집에 거하는 평범한 집사람(25:27)

그는 조용하면서도 야망이 있었다. 아버지의 복을 차지하려는

그래서 형이 배고파 하니 빵과 팔죽을 넘겨주고 장자권을 삼(25:34)

히11:9를 보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살았음을 보여 줌.

그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복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깨달음.

그들은 다 이방 땅에서 살면서 많은 재물, 할아버지도 100세에, 아버지도 60세에 아이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복에 대한 갈망(히11장 믿음 장은 야곱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상속자)

이삭이 죽을 때가 와서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에서 행세를 하며 복음 차지함

어머니의 이유: 큰 아들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함

작은 아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브엘세바를 떠나 어머니의 고향 밧단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함, 믿음 생활, 결혼 등 큰일에서 부모와 상의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다.

에서가 죽일까봐 황급히 밧단아람으로 떠나는 길에서 그는 벵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창28:10-22)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약속(28:13-15)

야곱의 말(28:16-17)

야곱의 서원(28:20-22), 내가 벵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어려운 인생, 믿음 생활하다가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영혼의 자유

“제가 죽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하고 이 교회로 왔음,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밧단아람에서의 삶(29장부터)

형을 피해 도망쳤는데 거기에는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이 있었다.

애송이 야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속임수의 거물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가 결국 레아를 얻음

그리고 라헬을 얻은 뒤 다시 7년을 죽도록 일함

라반이 보니 야곱이 온 이후로 자기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음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유익이 되어야 함.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잡아두려고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며 흥정함(창31:7)

야곱은 집이 그리워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결국 6년을 더 섬기고 처남들의 시기로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
아내가 4, 아이들이 11, 태 속에 1, 많은 짐승

라반과 그의 식구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개입함(창31:24)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이제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옴

에서가 400명의 남자와 함께 옴(창32:6).

압박 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결국 그를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창32:28)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도 그를 용서함

여기에는 야곱의 진정한 회개: 몸을 일곱 번 구부리며 나아감(33:3), 둘이 얼싸안고 울
야곱의 말(33:10),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다. 그렇게 형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

야곱의 약속 불이행

20년간(31:41)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내, 자식, 재물과 함께 돌아왔다.

그러면 그는 베델을 기억해야만 한다. 안 그런가? 31:13을 보라.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의 세겜의 도시 살렘에 머물며 거기서 제단을 쌓음((33:18-20)

브엘세바(1번)에서 하란(3번)까지 직선거리 800킬로미터(*)

하란에서 세겜(8번) 640킬로미터

세겜에서 베델(2번)까지의 거리는 24킬로미터, 가족들과 함께 이삼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분명히 그는 자기가 서원대로 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서원은 살렘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닌 베델에 제단을 쌓겠다고 서약하였다.

드디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

약속을 안 지키면 무조건 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징계가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로서 합당한 데 가서 살고 말하고 일해야 한다.

창34의 디나 사건: 야곱의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함

거룩하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굳이 하겠다고 달려들면 주님의 징계가 임한다.

히12:5-11,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결국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과 그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고 거짓으로 속여 할례를 받게 함
레위와 시므온이 이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다 죽임

야곱의 한탄(창34:30), 온 주변이 다 가나안 사람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과거의 서약을 기억하게 하심(35:1)

야곱의 제안(2): 이방 신들 제거,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함

가나안의 방식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과거의 지저분한 것들 다 버려야 한다.

악한 생각, 언행, 불평, 불만, 교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공치사)

하나님의 도우심(5), 하나님의 공포가 임함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결국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7).

이 일 이후로 드디어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12아들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경륜을 마무리하고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21세기 현시대 우리를 향한 적용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제물포에 내림, 미신과 무지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침. 교육, 의료, 의식 개혁

이승만의 한성 감옥(1899-1904, 5년 7개월) 회심,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1945년 8월 15일, 미국의 원폭 투하로 해방의 자유

1948년 5월 10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 민주주의 선거
 1948년 5월 31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제헌 국회, 기도로 시작함
 1948년 8월 15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 선포, 미국 등 인정
 1948년 7월 24일 대통령 취임사,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오늘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추대를 받은 나로서는 일변 감격한 마음과 일변 상당히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로 일층 더 결심하며 맹서합니다.

6.25 전쟁 극복, 한미방위조약 수교

박정희의 등장, 전두환의 마무리, 현재 세계 10위 대국
 기독교가 부흥함, 해방 후 1955년 60만 명, 1960년 100만 명
 해방 후 한국의 기독교인 수는 15년 동안 연평균 25% 이상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 역시 전 세계적인 일이다. 거의 천만 명(*)
 즉 교회의 성장, 부지런한 프로테스탄트 정신, 경제 발전의 원동력
 국가의 시작부터 반공산주의, 기독교 입국

머스크의 사진(2023년 12월 31일), (*) 이미 체제 싸움이 끝남
 그런데도 종북 주사파가 나라를 장악하고 국가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기독교의 급격한 타락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인구의 5분의 1이 되는 기독교회의 타락에 있다고 나는 생각함
 따라서 답도 교회에 있다.

교회 타락의 요소들

1. 기복 신앙, 번영 신학(Prosperity gospel)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빈곤의 극복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순복음 오순절주의이다.
 대다수 대형 교회들이 기복 신앙, 번영 신학으로 성장하였다. 로버트 솔러 같은 자의 긍정적 사고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 지향 주의, 기복 주의 번영 신학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다.
2. 신비주의
 1960년 이후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 은사주의 운동에 빠져 종교 통합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타언어, 비성경적인 방언(학습), 입신(장풍으로 뒤로 쓰러뜨리기), 예언 기도, 금이빨
 신사도 운동의 도입, 자칭 사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대형 교회들이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넘어가 성장하고 이것을 뒤쫓는 많은 교회와 목사들
 이것은 종교 통합을 위한 마귀의 계략이다. 동일한 일이 천주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3. 종교 일치 종교 통합
 1960년 바티칸 제2공회 이후 천주교는 종교 통합에 매진하고 있음
 한국 교회에도 WCC, NCK를 통해 카톨릭과의 종교 일치 운동이 확산함
 WCC: 용공 단체, 천주교 교황과 함께 종교 통합에 앞장 서는 단체
 이것을 세계 기독교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2013년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함
 이것은 고후6장 14-18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
 WEA(세계복음주의 연맹) 총재 김상복 목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는다’는 두 가지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기독교로 인정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영적인 간음

4. 교회 내 중복 죄의 세력의 급팽창

북한에서 보낸 첩자들이 기독교를 숙주로 해서 국가를 망하게 하는 활동을 함
교회 신학교, 목사,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중복 죄의 성향의 인사들이 매우 많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는 대척점에 있다.
이런 데도 교회와 신학교 안에 중복 죄의 세력이 수도 없이 많다.

5. 동성애, LGBTQ, 낙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 동성애의 창궐

LGBTQ, 성전환

하나님의 인간 창조, 남성과 여성, 성을 바꾸고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
낙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것

이런 일이 극도에 다다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교회 목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 심히 큰 죄악이다.

그런데 다수가 감각이 없다.

6.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목사의 소양 부족과 설교에 대한 인식 부족

나는 프로페셔널 목사가 아니다. 주중에 인하대 교수, 주말에만 목사, 어떤 면에서 이중직 목사
그런데 목사들을 보면 목사의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스피전의 설교학교, 맥아더의 예배, 목회론, 목양과 설교
등의 책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목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들리는 설교를 해야겠다고 세미나 참석하고 요령을 배우려 하는 목사들이 많다,

딤후4:1-4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목사가 온전히 강해해야 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 있으면
절마다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 교회 목사들의 설교: 설교의 비중이 예배에서 작기도 하고 감성팔이 설교, QT
설교(매일 적용), 신변잡기 설교, 코미디 설교,

대체 이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들, 다 성경적 설교를 하는 목사들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계엄, 탄핵 표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서약을 기억하게 하심(35:1)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방 신 제거,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음, 기록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회개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베엘로 올라가야 한다.

베엘의 의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성경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교회 성장, 개인의 물질적 축복, 자식들이 잘되는 것, 모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니 믿음의 목적이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도우심(5), 하나님의 공포가 임함, 악한 자들이 꼼짝하지 못함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교회가 결국 베엘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록하게 제단을 쌓아야 한다(7).

이번 사태 이후로 중복 주사파 척결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국가와
교회, 사회가 바르게 서며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마음껏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충만히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한다.